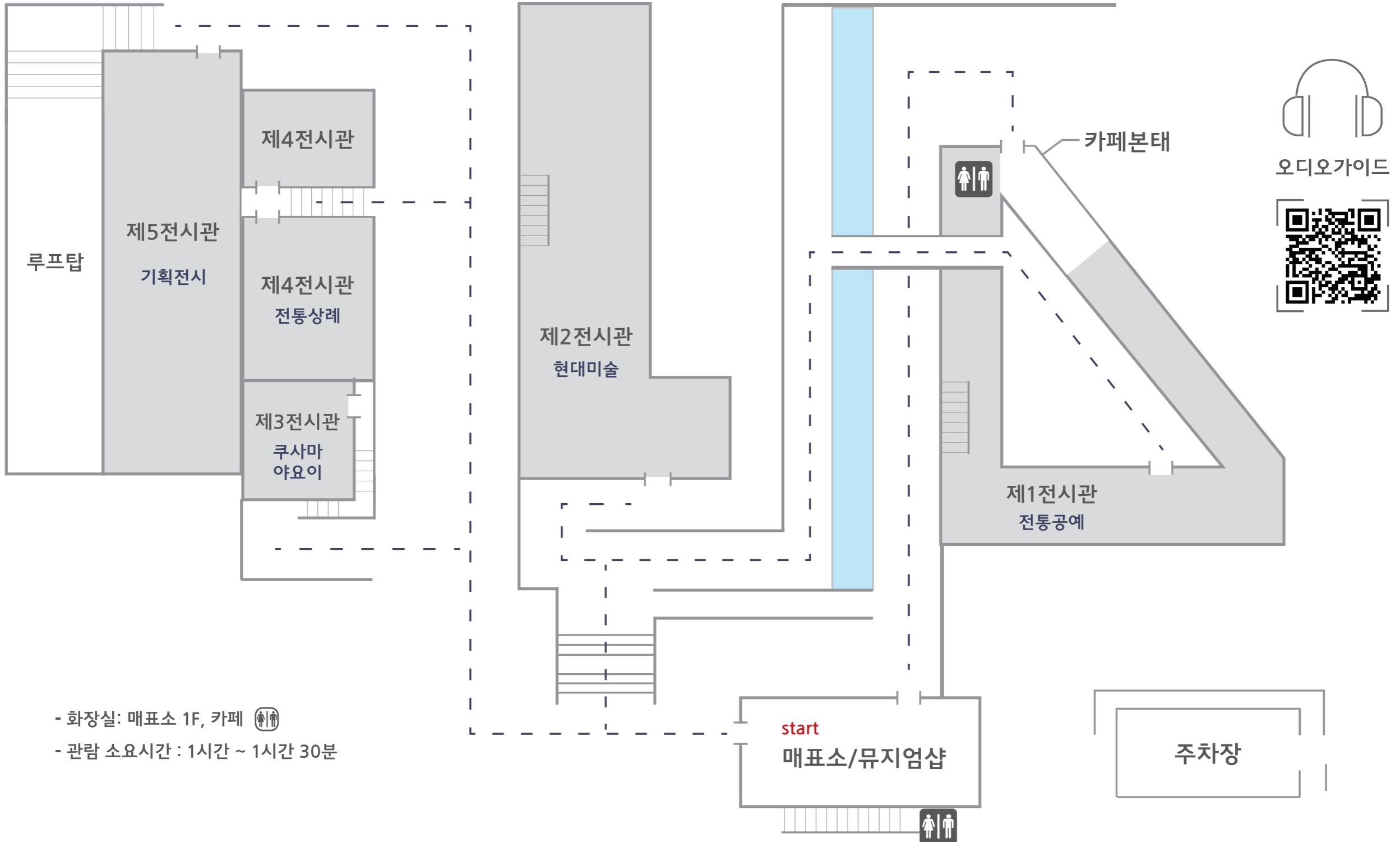



미로처럼 복잡한 관람 동선은 안도 다다오 건축의 특징입니다.
시야에 따라 달라지는 건물과 공간의 모습을 기대하며 관람해보세요.

bonte museum map



- 화장실: 매표소 1F, 카페 
- 관람 소요시간 : 1시간 ~ 1시간 30분





관람 안내

본태박물관





운영 시간 10:00 ~ 18:00



관람 에티켓

-  눈으로만 감상해주세요.
-  전시관 내에서는 정숙해주세요.
-  모든 음식물은 반입되지 않습니다.
-  박물관 내 모든 구역은 금연입니다.
-  반려동물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관람 유의 사항

-  상업적 촬영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전시관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위치 - 매표소 1층, 카페 본태
-  제1전시관은 입구와 출구가 다릅니다. 우천시 우산을 잘 챙겨주세요.
-  계단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바랍니다. (064.792.8108)

공간 관람 안내

제2전시관 안도 다다오 - 명상의 방

안도 다다오는 생각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며,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태박물관에는 공간뿐 아니라 그 동선에도 그의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효율적이고 일률적인 동선을 다니는 것이 아닌, 미로와 같은 박물관의 길 이곳저곳을 거닐며 느끼고 생각하기를 의도했습니다.

전시관을 관람하는 박물관의 동선도, 명상의 방을 찾아 들어오는 길도 모두 미로처럼 비효율적인 듯 만들어져 있지만, 박물관의 미로들을 통해 다다른 명상의 방 속에서 자신이 느낀 것과 생각한 것을 모두 정리하고 나갈 수 있길 바라는 건축가의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명상의 방, 2012

안도 다다오

빛과 물과 바람,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

1995년,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했다는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거친 마감과 투박한 느낌으로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노출 콘크리트라는 소재는 안도 다다오를 통해 대중화되며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노출 콘크리트 사이에서 빛과 물, 그리고 바람으로 드러나는 자연은 건축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에 아무 것이나 할 수 있었던 그만의 건축 실험은 성공을 거두어 전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건축적 흐름을 만든 안도의 작품을 이 곳 본태박물관에서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도 다다오, 1941-